

한국에 과학방송 시대 열린다

글 | 이강봉 _ 사이언스타임즈 편집위원 aacc409@hanmail.net

중국이 과학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중국은 이미 국영의 중앙 TV방송국인 CCTV(채널 10)를 통해 과학방송을 선보이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 정보 및 특집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더불어 시청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선진국의 과학방송 성공사례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디스커버리 채널'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고, 그밖에도 '사이언스 TV', 'NASA TV' 등 다수의 과학채널들이 '디스커버리 채널'과 치열한 시청률 확보 경쟁을 하고 있다. 영국은 'BBC knowledge'를 통해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 과학채널과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콘텐츠 경쟁을 벌이고 있다. BBC는 특히 과학기술과 관련된 소식들을 신속히 보도함으로써 큰 명성을 얻고 있다. 그밖에 이웃 일본 역시 '사이언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초 테이프 없는 방송제작 시스템

국내에서도 과학기술계는 물론 정부, 국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계자들이 과학방송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2007년 들어 고대하던 과학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월25일 과학기술부는 민간주도, 정부지원 형태의 과학방송 채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통해 YTN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YTN은 2월 중에 프로그램공급업체(PP)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가 오는 7월부터 과학방송 채널 '사이언스 TV' (가칭)를 선보일 계획이다. YTN의 황성수 과학TV 추진단장은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과학기술계의 생생한 현장을 시청자에게 그때그때 전달하기 위해 첨단 시설을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테이프 없는 꿈의 방송국'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테이프 없는 방송국이 가능한 것은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첨단 장비 때문이다. 과거에는 녹화 테이프를 사용해야 하는 ENG 카메라를 사용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10시간 분량의 영상과 음향을

테이프 없이 하드디스크를 통해 저장할 수 있는 6mm HD카메라가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1천 시간 분량의 화상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의 저장장치, 몇 번이고 자유자재로 편집이 가능한 비선형 편집기를 투입할 경우 취재에서 편집에 이르기까지 제작진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해 편집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편집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선망이 없이 비선형으로 편집된 방송용 자료는 구조정실의 중앙 서버로 보내져 편성 스케줄에 맞춰 신속하게 자동 송출된다. 그동안 YTN의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경험을 최대한 살려 첨단 방송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경우 "다른 어떤 방송사보다도 선명



표원수 YTN 사장

한 화면과 신속한 정보를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이 YTN측의 설명이다.

황 단장은 “사이언스 TV가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게 될 ‘테이프 없는 방송’ 시스템이야말로 한국 디지털 방송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며, 또한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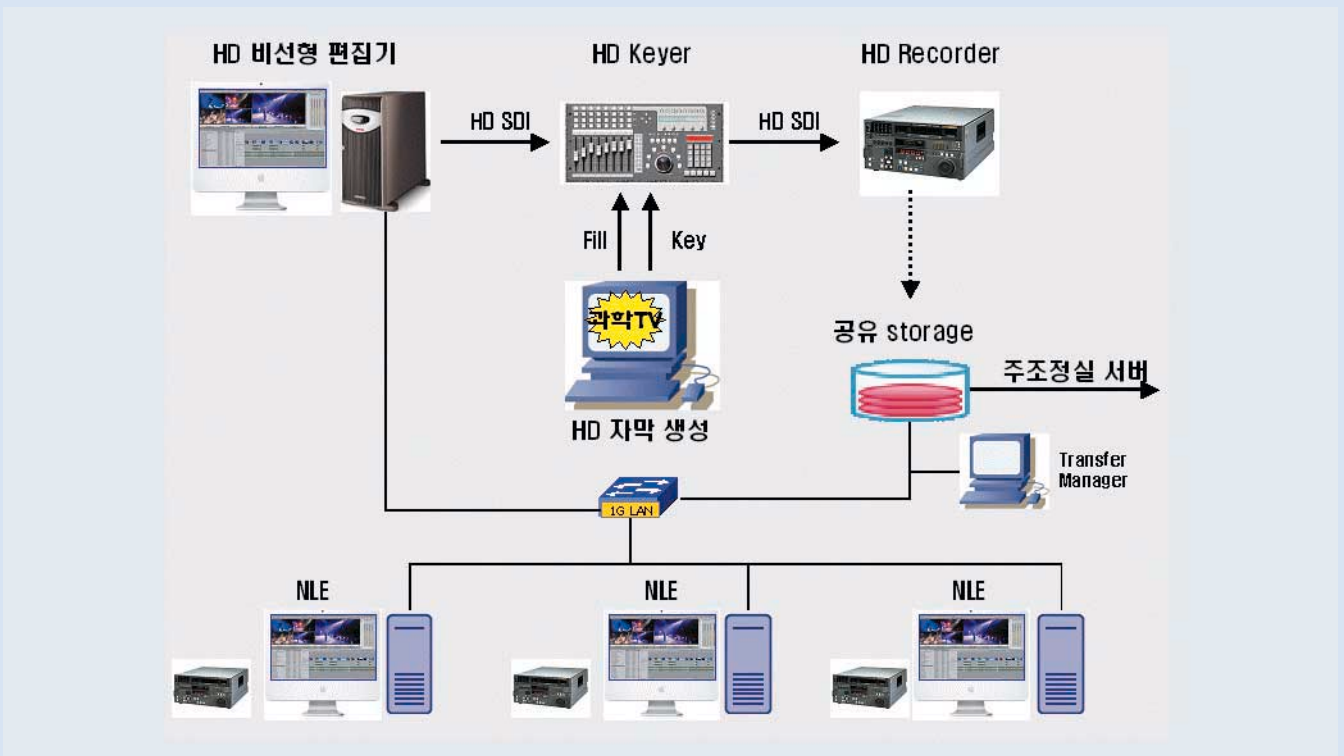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과학방송 구현

제작자 입장에서의 관심과는 달리 시청자들의 관심은 콘텐츠일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이 방영되느냐 하는 문제는 향후 ‘사이언스 TV’의 성패를 가름하는 부분이다. 현재 과학방송 제작진에서는 YTN과 연계해 국내외에서 공급되고 있는 과학기술 뉴스 및 정보를 즉시 전달하는 한편, 과학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드라마,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가능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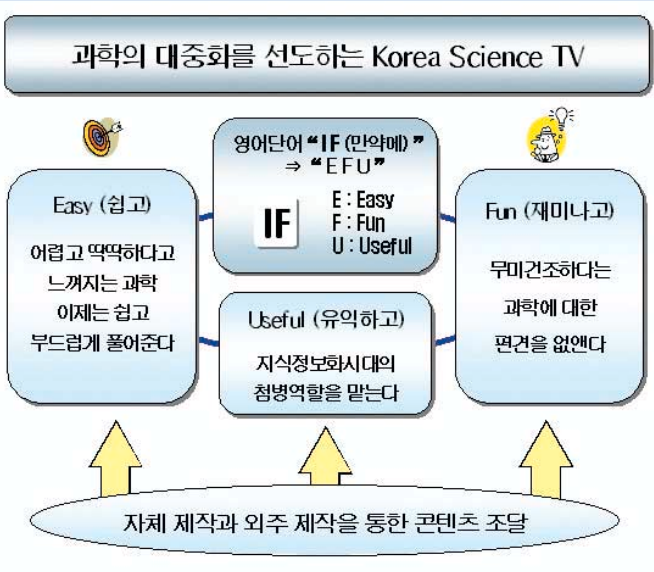
‘사이언스 TV’가 제작할 프로그램의 기본 편성 전략은 ‘쉽고(Easy), 재미있고(Fun), 유익한(Useful) 과학방송’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시청자들의 다양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다채로운 콘텐츠를 방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내 시청자들은 물



YTN 신사옥



‘사이언스 TV’의 첨단 편집 시스템



'사이언스 TV'의 프로그램 편성 목표



YTN 신호분배실(위)과 YTN 주조정실

론 세계 시청자들을 놀라게 할 프로그램들을 준비중이다.

황 단장은 “모 회사인 YTN이 그 동안 과학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해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TV 사업을 위해 동아사이언스, 재능교육, 코리아비주얼스 등 과학전문 콘텐츠를 가진 업체들과 제휴를 하고 있어 제반 여건들을 적절히 활용, YTN 방송 시설을 통해 좋은 프로그램들을 내보낸다면 훌륭한 과학방송이 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YTN은 지난 2000년부터 매일 ‘웰컴 사이언스’, ‘과학과 미래’, ‘사이언스 플러스’ 등의 과학을 쉽게 풀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여 왔다. 그중에서도 현재 방영중인 ‘사이언스 플러스’는 과학기술을 시청자들의 생활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이언스 TV’ 태동을 앞두고 정부 역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학방송이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의 기초 인프라란 점에서 국가 연구개발(T&D)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앞으로 3년 동안 YTN에 최고 120억 원(연간 최대 40억 원 한도)의 과학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운영 성과가 클 경우 계속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추가 비용을 위해 YTN도 연간 40억~5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향후 시청률 확보가 성패의 관건

그 동안 일반 국민들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대부분을 TV, 또는 신문에서 얻고 있었다. 그러나 지상파 TV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 중 과학기술 관련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은 3.7%에 불과하고, 내용 또한 동식물의 자연다큐멘터리나 과학퀴즈 등 오락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신문들 역시 매주 한 번 과학기술 면을 할애하고 있는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과학방송 출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과학방송을 설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과학방송을 위해 과학방송공사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정부측에서는 공사 설립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의 장점이 있으나 과도한 정부 재정과 운영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추진의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익법인인 한국과학문화재단 부설로 과학방송을 설립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바 있다. 재단 부설로 과학방송을 설립할 경우 '사이언스올', '사이언스타임즈' 등을 통해 과학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측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 부담과 함께 낮은 효율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측에서 민간 사업자를 과학방송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것은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과학방송이 성공할 확률이 매우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진국에서 성공한 과학방송들의 경우 대부분 민간 방송을 표방하고 있는데, 특히 1982년 설립된 영국의 지상파 방송 '채널 4'는 유익하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과 우수 영화를 제작해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고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과학기술부 김성욱 과장은 "민간 사업자에 의한 과학방송 채널 운영방식은 전문방송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으며, 그 형식에 있어서도 오락, 다큐, 과학드라마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할 수 있으며, 방송시간대 선택

도 지상파와는 달리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100여 개에 달하는 유선방송들과 경쟁해 시청자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동적인 경영방식 도입을 통해 방송사 운영을 효율화하고, 또 상업적인 방송보다는 공익성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방송사는 물론 방송사를 지원하는 정부측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그 동안 과학전문 채널의 출현은 과학기술계는 물론 많은 국민의 희망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과학채널 설립에 많은 지지가 있었던 것은 한국이 세계 10대 과학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선진국과 같은 과학방송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과학방송 '사이언스 TV'의 출현은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함께 21세기 과학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한국에 있어 매우 희망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T**



프로그램 제작을 협의 중인 '사이언스 TV 제작진'. 정면에 보이는 사람이 황성수 YTN 과학TN 추진기획단장